

## 회계학

### 4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 ②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확실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 ③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 ④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 ⑤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 42. (주)관세는 20×0년 1월 1일 건물을 ₩1,000,000에 구입하여 20×5년 12월 31일까지 정액법(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 ₩100,000)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6년 1월 1일 동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잔존가치는 ₩40,000으로 재추정하였고 향후 5년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20×6년 말에 인식해야 할 동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단,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① ₩84,000                      ② ₩90,000                      ③ ₩96,000
- ④ ₩140,000                    ⑤ ₩160,000

#### 43.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 ②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을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은 총액주의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 ④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하더라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⑤ 단기매매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은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44. (주)관세는 20×1년 12월 초 위탁판매를 위해 (주)세관에게 단위당 원가 ₩1,200인 상품 500개를 적송하면서 운임 ₩30,000을 현금지급하였다. 20×2년 1월 초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주)관세는 (주)세관에서 다음과 같은 판매현황을 보고받았다.

매출액	400개×@₩1,500 =	₩600,000
판매수수료	₩18,000	
운임 및 보관료	₩12,000	(₩30,000)
(주)관세에게 송금한 금액		₩570,000

(주)관세가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20×1년 재무제표에 인식할 매출액과 적송품 금액은?  
(단, (주)관세는 계속기록법을 채택하고 있다)

	매출액	적송품 금액
①	₩570,000	₩120,000
②	₩570,000	₩126,000
③	₩600,000	₩120,000
④	₩600,000	₩126,000
⑤	₩600,000	₩144,000

45. 다음은 (주)관세가 20×5년 12월 31일에 지출한 연구 및 개발 활동 내역이다. (주)관세가 20×5년에 비용으로 인식할 총금액은? (단, 개발활동으로 분류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출 금액의 50%가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한다)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100,000
-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제작하는 활동 ₩250,000
-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건설하는 활동 ₩150,000
-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응용하는 활동 ₩300,000
-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50,000

- ① ₩450,000                      ② ₩550,000                      ③ ₩650,000  
 ④ ₩700,000                      ⑤ ₩750,000

46. 20×1년 기초 재무상태표와 기말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의 총액이 다음과 같고 수익과 비용의 합계액이 각각 ₩10,000,000과 ₩8,000,000인 경우, 20×1년의 추가적인 지분 출자액은? (단, 배당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	기초	기말
자산총액	₩50,000,000	₩30,000,000
부채총액	₩65,000,000	₩20,000,000

- ① ₩20,000,000                      ② ₩23,000,000                      ③ ₩26,000,000  
 ④ ₩29,000,000                      ⑤ ₩32,000,000

47. 20×1년 초 설립한 (주)관세의 자본거래는 다음과 같다.  
 (주)관세의 20×1년 말 자본총액은?

- 20×1년 1월: 보통주 1,000주(주당 액면가 ₩5,000)를 액면발행하였다.
- 20×1년 3월: 자기주식 200주를 주당 ₩6,000에 매입하였다.
- 20×1년 4월: 자기주식 200주를 주당 ₩7,000에 매입하였다.
- 20×1년 5월: 3월에 구입한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8,000에 처분하였다.
- 20×1년 9월: 3월에 구입한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9,000에 처분하였다.

- ① ₩3,600,000                      ② ₩4,100,000                      ③ ₩5,000,000  
 ④ ₩5,500,000                      ⑤ ₩6,000,000

48. 다음 자료에 따른 건물 관련 손익이 20×2년 (주)관세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상각한다)

- 20×1년 1월 1일 투자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1,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 정액법 상각)을 취득한 후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였다.
- 20×2년 7월 1일 (주)관세는 동 건물을 공장용 건물(잔존가치 ₩0, 내용연수 2.5년, 정액법 상각)로 대체하여 자가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 일자별 건물 공정가치

20×1년 말	20×2년 7월 1일	20×2년 말
₩1,200	₩1,400	₩1,500

- ① ₩300 증가                      ② ₩280 감소                      ③ ₩180 증가
- ④ ₩80 감소                      ⑤ ₩120 감소

49. 충당부채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 ② 의무에는 언제나 해당 의무의 이행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존재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일반대중에 대한 충당부채는 인식될 수 없다.
- ③ 개별항목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은 높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 ④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 ⑤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추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50. (주)관세는 사용 중인 기계장치 A(장부금액 ₩300,000, 공정가치 ₩150,000)를 (주)세관의 사용 중인 기계장치 B(장부금액 ₩350,000, 공정가치 ₩250,000)와 교환하였으며 공정가치 차액에 대하여 현금 ₩100,000을 지급하였다. 해당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는 경우, (주)관세와 (주)세관이 각각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실은?

<u>(주)관세</u>	<u>(주)세관</u>
① ₩100,000	₩100,000
② ₩100,000	₩150,000
③ ₩150,000	₩100,000
④ ₩150,000	₩150,000
⑤ ₩200,000	₩250,000

5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된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역사적 원가와 달리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는다.
- ② 자산의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 ③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이다.
- ④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직접 관측될 수 없으며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으로 결정된다.
- ⑤ 공정가치는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참여자 관점을 반영한다.

52. 20×1년 (주)관세의 사옥건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와 건물신축과 관련된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토지의 취득원가는? (단, 토지진입로는 영구적이나 울타리는 내용연수가 5년이다)

내역	금액(₩)
구건물 포함 토지 매입대금	3,000
구건물 철거비	500
구건물 철거 시 발생한 고철 매각대금	300
울타리 공사비	1,000
건물을 신축한 건설회사에 지급한 건설원가	6,000
토지진입로 공사비	1,000
건물 건설 계약금	500
토지 취득 시 부담하기로 한 미지급 재산세	50
토지 취득 중개수수료	100
건축설계비	500
신축건물 지정차입금의 건설기간 이자비용	100
취득 후 토지분재산세	200

- ① ₩4,350                      ② ₩4,500                      ③ ₩4,550
- ④ ₩5,500                      ⑤ ₩5,850

53. (주)관세는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8%,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만기 3년인 사채를 할인발행하였다. 만기까지 상각되는 연도별 사채할인 발행차금 상각액은 다음과 같다.

20×1. 12. 31.	20×2. 12. 31.	20×3. 12. 31.
₩15,025	₩16,528	₩18,195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2년 12월 31일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96,528이다.
- ② 20×1년 1월 1일 사채의 발행금액은 ₩950,252이다.
- ③ 이 사채의 표시이자율은 유효이자율보다 낮다.
- ④ 이 사채의 발행 기간에 매년 인식하는 이자비용은 동일한 금액이다.
- ⑤ 20×2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981,805이다.

54. (주)관세는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이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발행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면금액 : ₩1,000,000</li> <li>· 표시이자율 : 연 5%(매연도말 후급)</li> <li>· 일반사채 시장수익률 : 연 10%</li> <li>· 상환기일(만기) : 20×3년 12월 31일</li> <li>· 원금상환방법 :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05%를 일시상환</li> <li>· 현재가치 계수는 다음과 같다.</li> </ul>			
	기간	5%	10%
단일금액 ₩1의 현재가계수	3	0.86	0.75
정상연금 ₩1의 현재가계수	3	2.72	2.49

20×2년 초에 전환사채 액면금액의 70%가 주식으로 전환되었을 때 자기자본 증가액은 얼마인가? (단, 전환간주일은 기초시점으로 한다.)

- ① ₩667,240                      ② ₩795,560                      ③ ₩800,000
- ④ ₩835,960                      ⑤ ₩846,060

55. (주)관세는 20×1년 1월 1일에 상환우선주 100주(주당 액면금액 ₩5,000, 연 배당률 6%, 누적적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다. (주)관세는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20×3년 12월 31일에 주당 ₩6,000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배당금은 매년 말 지급하며, 상환우선주 발행 시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상환우선주 발행이 (주)관세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이자율 10%, 3년간 ₩1의 현가계수 및 연금현가계수는 각각 0.75, 2.5라 가정하며, 현가계수 가정에 따른 상환우선주 발행가와 유효이자율에 의한 만기상환장부금액의 차이는 무시한다)

- ① 20×1년 1월 1일 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은 ₩525,000이다.
- ② 20×1년 12월 31일 상환우선주의 장부가액은 ₩547,500이다.
- ③ 상환우선주의 발행으로 20×1년 당기순이익이 ₩52,500 감소한다.
- ④ 20×1년 배당금 ₩30,000은 자본요소와 관련되므로 당기순이익의 분배로 인식한다.
- ⑤ 위 상환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56.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주)관세의 20×1년 말 주가이익비율(PER)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 20×1년 당기순이익 : ₩88
- 20×1년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 : 30주
- 20×1년 7월 1일 유상증자 : 보통주 25주(주주우선배정신주발행으로 1주당 발행가액은 ₩4이며, 이는 유상증자 권리락 직전 주당 종가 ₩5보다 현저히 낮음)
- 20×1년 12월 31일 보통주 시가 : 주당 ₩6

- ① 1.5                      ② 2.0                      ③ 2.5
- ④ 3.0                      ⑤ 3.5

57. 다음은 (주)관세의 20×6년 회계자료이다. 20×6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간접법)은?  
(단, 법인세지급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40,000
매출채권(순액)의 감소	40,000
감가상각비	3,000
유형자산처분손실	6,000
장기차입금의 증가	100,000
선수금의 증가	2,000
선급비용의 감소	4,000
FVOCI금융자산처분이익	7,000
매입채무의 증가	3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
FVPL금융자산평가손실	10,000
법인세지급액	50,000

- ① ₩278,000                      ② ₩288,000                      ③ ₩305,000  
④ ₩338,000                      ⑤ ₩378,000

58. 20×6년 12월 31일 은행계정조정 후 (주)관세의 장부상 정확한 당좌예금계정의 잔액은 ₩300,000이다. 이 금액은 거래은행이 보내온 20×6년 12월 31일 은행계정명세서의 잔액과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주)관세가 발행한 수표 ₩5,000을 거래은행이 실수로 ₩500으로 처리하였다.
- (주)관세의 기발행미인출수표는 ₩20,000이다.
- 거래은행이 미처 기입하지 못한 (주)관세의 당좌예금 입금액이 ₩10,000이다.
- (주)민국이 발행한 수표 ₩4,000을 거래은행이 실수로 (주)관세의 계정에서 차감하였다.

거래은행이 보내온 20×6년 12월 31일 은행계정명세서의 잔액은?

- ① ₩289,500                      ② ₩290,500                      ③ ₩310,500  
④ ₩309,500                      ⑤ ₩272,500



59. (주)관세는 20×5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000,000에 취득하여 정액법(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전액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6년 말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420,000인 경우, 20×6년 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단, 20×6년 말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20×5년 말	20×6년 말
공정가치	₩920,000	₩580,000

- ① ₩150,000                      ② ₩280,000                      ③ ₩330,000  
 ④ ₩380,000                      ⑤ ₩400,000

60. 다음은 (주)관세의 20×1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자료의 일부다.

(주)관세가 20×1년 현금흐름표에 표시할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액은?

구분	전기 말	당기 말	당기발생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90,000	₩75,000	
기계장치	₩4,650,000	₩5,100,000	
감가상각누계액	₩1,425,000	₩1,545,0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15,000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300,000
기계장치 처분이익			₩75,000

<추가자료>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이다.
- ₩750,000의 기계장치 취득거래가 발생하였다.
- 모든 거래는 현금거래이다.

- ① ₩525,000 유출                      ② ₩555,000 유출                      ③ ₩630,000 유출  
 ④ ₩665,000 유출                      ⑤ ₩725,000 유출

6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목적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으로 각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것이다.
- ② 거래가격은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을 조정한다.
- ③ 할인액 전체가 계약상 하나 이상의 일부 수행의무에만 관련된다면 관측 가능한 증거가 있는 때 외에는,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④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하므로,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 판매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
- ⑤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해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별 판매가격은 총 거래가격에서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를 차감하여 추정한다.

62. ㈜관세의 20×6년도 법인세 관련 자료가 아래의 표와 같을 때 전기이월 일시적차이가 없다면 ㈜관세의 20×6년도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단,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20×8년에 소멸 될 예정이며, 기타의 차이는 일시적차이가 아니다. 20×6년도 과세소득에 적용할 법인세율은 25%이나, 세법이 개정되어 20×7년부터 적용할 세율은 20%이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
가산할 일시적차이	(2,000)
기타의 차이	1,000
과세소득	₩9,000

- ① ₩1,240                      ② ₩2,450                      ③ ₩2,250
- ④ ₩1,024                      ⑤ ₩2,650

63. ㈜관세는 20×1년 초 ㈜한국이 발행한 사채(액면금액₩100,000, 표시이자율 연10%, 매년 말 이자지급)를 ₩90,000에 취득하고, 이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이 발행한 사채의 20×1년 말 공정가치가 ₩95,000인 경우, ㈜한국이 발행한 사채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관세의 20×1년도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 ① ₩10,000 감소                      ② 영향 없음                      ③ ₩10,000 증가
- ④ ₩15,000 증가                      ⑤ ₩20,000 증가

64. 12월 결산법인 (주)관세는 20×1년 12월 1일 고객에게 A제품을 ₩50,000(원가 ₩40,000)에 인도하고 현금을 수령하였으며, (주)관세는 20×2년 3월 31일에 동 A제품을 고객으로부터 ₩58,000에 재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20×2년 3월 31일 A제품의 시장가치는 20×1년 12월 1일 예상과 동일한 ₩56,000이며, (주)관세는 20×2년 3월 31일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 동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주)관세는 20×1년 12월 1일 해당거래를 리스계약으로 회계처리 한다.
- ② (주)관세는 20×1년 12월 31일 해당거래로 인식할 이자비용은 없다.
- ③ (주)관세는 20×1년 12월 1일 해당거래로 인식할 매출액은 ₩50,000이다.
- ④ (주)관세는 20×2년 3월 31일 해당거래로 인식할 매출액은 ₩58,000이다.
- ⑤ (주)관세는 20×2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65. <보기>는 토지의 공정가치 변동자료이다. (주)관세는 토지를 20×0년 7월 중에 취득하고 계속 보유 중이다. 동 토지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각각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관세는 토지 회계처리시 투자부동산의 경우 공정가치 모형을, 유형자산의 경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보기>	
• 20×0년 7월 중 취득 시 공정가치: ₩100,000	
• 20×0년 12월 31일 공정가치: ₩150,000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유형자산으로 분류
① 변화없음	변화없음
② 변화없음	₩50,000 증가
③ ₩50,000 증가	₩50,000 감소
④ ₩50,000 증가	₩50,000 증가
⑤ ₩50,000 증가	변화없음

66. 12월 결산법인 (주)관세는 20×1년 2월 20일 (주)세관의 주식100주를 취득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하였다. 20×1년 12월 31일 (주)세관의 1주당 공정가치는 ₩1,200이다. 20×2년 3월 1일 (주)세관은 무상증자 20%를 실시하였으며, (주)관세는 무상신주 20주를 수령하였다. 20×2년 7월 1일 (주)세관주식 60주를 ₩81,000에 처분하고 거래원가 ₩1,000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였을 경우 동 거래가 20×2년 (주)관세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① ₩21,000 증가                      ② ₩20,000 증가                      ③ ₩9,000 증가
- ④ ₩8,000 증가                      ⑤ ₩12,000 증가

67. 보고기간 말인 12월 31일인 (주)관세는 A사가 발행한 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8%인 채무상품을 20×1년 1월 1일 ₩92,418(유효이자율 연 10%)에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동 채무상품의 만기일은 20×5년 12월 31일이며, 이자는 매년 12월 31일에 지급한다. (주)관세는 이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20×1년 말 ₩94,000이고, 20×2년 말 ₩98,000일이다. 20×2년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은 얼마인가?

- ① ₩340                      ② ₩1,245                      ③ ₩1,722  
④ ₩2,634                      ⑤ ₩2,974

68. (주)관세는 20×1년 1월 1일에 (주)민국의 발행주식 총수의 40%에 해당하는 100주를 총 ₩5,0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지분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취득일 현재 (주)민국의 장부상 순자산가액은 ₩10,000이었고, (주)민국의 장부상 순자산가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재고자산과 건물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각각 ₩2,000과 ₩400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고자산은 모두 20×1년 중에 외부에 판매되었으며, 20×1년 1월 1일 기준 건물의 잔존내용연수는 4년이고 잔존가치는 ₩0이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주)민국은 20×1년도 당기순이익 ₩30,000과 기타포괄이익 ₩10,000을 보고하였으며, 주식 50주(주당 액면 ₩50)를 교부하는 주식매당과 ₩5,000의 현금매당을 결의하고 즉시 지급하였다. (주)관세가 20×1년도 재무제표에 보고해야 할 관계기업투자주식과 지분법이익은?

- ① 관계기업투자주식 ₩17,160    지분법이익 ₩11,160  
② 관계기업투자주식 ₩17,160    지분법이익 ₩15,160  
③ 관계기업투자주식 ₩18,160    지분법이익 ₩11,160  
④ 관계기업투자주식 ₩18,160    지분법이익 ₩15,160  
⑤ 관계기업투자주식 ₩20,160    지분법이익 ₩15,160

69. (주)관세는 1월 1일 액면금액 ₩50,000(액면이자율 연 8%, 이자 매년 말 후급)의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같은 해 4월 1일에 발행하였다. 1월 1일과 4월 1일의 유효이자율은 10%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며, 1월 1일과 4월 1일의 유효이자율은 10%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며, 1월 1일 사채의 현재가치는 ₩47,513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사채발행비는 발생되지 않았고, 사채이자는 월단위로 계산하며,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① 4월 1일의 사채액면이자 미지급액은 ₩1,000이다.
- ② 4월 1일의 사채장부금액은 ₩47,701이다.
- ③ 4월 1일의 현금수령액은 ₩48,701이다.
- ④ 4월 1일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은 ₩2,487이다.
- ⑤ 4월 1일의 부채증가액은 ₩47,701이다.

70. (주)관세는 20×1년부터 20×3년까지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20×4년도에는 영업의 호전으로 ₩220,000을 현금배당 할 계획이다. (주)관세의 20×4년 12월 31일 발행주식수가 보통주 200주(주당 액면금액 ₩3,000, 배당률 4%)와 우선주 100주(비누적적, 완전참가적 우선주, 주당액면금액 ₩2,000, 배당률 7%)인 경우, 보통주배당금으로 배분해야 할 금액은?

- ① ₩120,000                      ② ₩136,500                      ③ ₩140,000
- ④ ₩160,500                      ⑤ ₩182,000

71. (주)관세의 20×6년도 생산·판매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본원가(prime cost)는?

○ 재고자산		
구 분	기 초	기 말
원재료	₩10,000	₩12,000
재공품	50,000	60,000
제품	80,000	96,000

○ 당기 원재료 매입 ₩40,000  
○ 당기매출원가 ₩150,000  
○ 직접노무원가는 가공원가의 60%이며, 원재료는 직접재료로만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 ① ₩82,800                      ② ₩105,200                      ③ ₩120,800
- ④ ₩132,800                      ⑤ ₩138,000



75. (주)관세는 20×6년도에 설립되었고, 당해연도에 A제품 25,000단위를 생산하여 20,000 단위를 판매하였다. (주)관세의 20×6년도 A제품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20×6년도 기말재고자산의 차이는?

직접재료원가	₩20	직접노무원가	₩15
변동제조간접원가	10	고정제조간접원가	5

  

○ 단위당 판매가격	₩250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13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30
○ 총고정제조원가	1,000,000
○ 총고정판매비와 관리비	500,000

- ① ₩50,000                      ② ₩200,000                      ③ ₩250,000  
 ④ ₩350,000                      ⑤ ₩400,000

76. (주)관세는 종합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60, 전환원가 ₩40이었다. 공정의 50% 시점에서 품질검사를 수행하며, 검사에 합격한 전체수량의 10%를 정상공손으로 처리하고 있다. (주)관세의 물량흐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정상공손원가는?

기초재공품 1,000개(완성도 30%) 당기착수량 3,000개	당기완성량 2,600개 공손수량 500개 기말재공품 900개(완성도 60%)
---------------------------------------	--

- ① ₩17,500                      ② ₩20,800                      ③ ₩28,000  
 ④ ₩35,000                      ⑤ ₩37,500

77. (주)관세는 두 종류의 제품 A와 B를 생산하여 판매하며, 각 제품 매출액이 회사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이다. 매출액에 대한 변동비는 제품 A가 60%, 제품 B가 40%이다. 총고정비는 ₩100,000이며, 그 밖의 다른 비용은 없다. 총고정비가 20% 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10,000의 순이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매출액은? (단, 세금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130,000                      ② ₩220,000                      ③ ₩240,000  
 ④ ₩260,000                      ⑤ ₩320,000

78. ㈜관세는 화장품 제조회사로 화장품을 담는 용기도 함께 생산하고 있다. 화장품 용기 생산량은 매년 1,000개이며, 1,000개 조업도 수준 하에서 화장품 용기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아래의 표와 같다. 그런데 외부의 용기 생산업자가 화장품 용기 1,000개를 개당 ₩95에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관세가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화장품 용기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를 연 ₩10,000에 다른 회사에 임대할 수 있다. 한편, 화장품 용기를 외부에서 구입하더라도 고정 제조간접 원가의 50%는 계속해서 발생된다. ㈜관세가 외부공급업자의 제안을 수락할 경우 연간 이익은 얼마만큼 증가 혹은 감소 하겠는가?

구분	단위당 원가
직접재료원가	₩30
직접노무원가	20
변동제조간접원가	10
고정제조간접원가	40
화장품 용기의 단위당 제조원가	₩100

- ① ₩5,000 증가                      ② ₩20,000 증가                      ③ ₩10,000 증가  
 ④ ₩10,000 감소                      ⑤ ₩5,000 감소

79. 전략적 원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목표원가계산은 제조이전 단계에서의 원가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② 가치사슬원가계산에서는 제품생산 이전에 발생한 활동과 관련된 원가는 물론 제품생산 이후에 발생한 활동과 관련된 원가도 분석한다.  
 ③ 품질원가에서 예방원가는 대부분 제품이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품을 검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④ 제품수명주기원가계산에서는 특정 제품의 기획에서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식별·추적한다.  
 ⑤ 카이젠원가계산은 제품의 수명주기상의 제조단계에서 원가를 절감시키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80. (주)관세의 20×6년도 제품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안전한계율은?

○ 단위당 판매가격	₩5,000
○ 공헌이익률	35%
○ 총고정원가	₩140,000
○ 법인세율	30%
○ 세후이익	₩208,250

- ① 68%                      ② 70%                      ③ 72%                      ④ 74%                      ⑤ 76%